

안녕하세요. 번동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제 소통은 비장애인과 달리 청각장애로 소리없고 손으로 대화하는 수어(음성아님)를 사용하고 있는 농인이라 하는데 요새 발전된 IT시대에 자막뿐만아니라 전광같은 글로 보인 소통이 늘어나서 일상생활에 소통이 어느정도 알 수 있다는 인식이 익숙해진 듯이 버틸 수 있는데, 수어가 나오면 더 반가운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다가 얼마전에 구의회 수어통역 지원서비스 소식이 나와서 당연한 기대를 들어서 물론 구의회, 수어통역사 배치 해준 데 감사한 생각으로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꾸준히 봤어요.

메인화면에 비해 수어통역 공간이 10배 적게 나와봤는데 잘 보이는 부분보다 지화(자음과 모음 지문자)가 더 작아서 안 보인데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데 특히, 농어르신들의 시력이 무리하지 않을까 괜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음성대신 손가락, 얼굴표정으로 수어화면을 보는 도중에 그런 화면에 살짝 장애물이 나왔다가 사라지지 않고 수어통역사를 무시하는 것뿐만아니라 보이는 수어를 짓밟은 기분이 들어서 좀 참았다가 3초아니고 3분정도 계속 노출되고, 모른 분의 얼굴신이 까지 나와서 수어가 찢어진 데 같아 보이니 내 기분이 진짜 나쁘게 됐어요. 민원에 넣게 됩니다.

비장애인이 고의성이 아니더라도 모를 수 있으니 미리 수어통역사의 공간에 절대 방해주지 말도록 신경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뿐만아니라 수어를 즐겨 보는 농인만 아니라 청인(수어에 관심이 있는 분) 기분이 다르지 않을 수 있으니 사과가 필요해야 합니다.

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8.24)



수어통역 정면 중 장애물 노출

수어통역 공간 비율이 더 확대 필요합니다. 아래사진에 비해 굉장히 적게 보입니다.

강북구청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영상뉴스 수어통역모습



참고자료 : <https://youtu.be/iuze5c6z5AY>